‘1만4천 연등’ 동국대 장엄…5개국 대사 “뷰티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심을 봉축하는 1만4000여 연등이 동국대를 장엄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9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김용현 교무부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멕시코, 태국, 스리랑카, 인도, 프랑스 5개국 대사, 대사대리, 부대사 내외가 외빈으로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밝히는 등불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돈관 스님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중생의 어둠을 걷어내라는 가르침”이라며 “오늘 밝히는 연등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갈등과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음을 상기한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나아가 온 세계에 평화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윤재웅 총장은 봉축사를 통해 “등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며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할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과 세상으로 퍼진다”면서 “120년의 역사 속에 동국대는 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돼 왔으며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주한대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오늘 동국대에 와서 아름다운 연등을 보니 세상에 평화가 내린 듯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에 와서 저와 제 아내는 불교철학과 문화를 배우고 있다.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점등식 직후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5개국 대사 등이 팔정도 광장을 탑돌이 하고 있다.

동국대, 4월 9일 봉축 점등식
돈관 스님 “각자 마음 밝히길”
멕시코 등 5개국 대사도 동참

타니 생랏 주한 태국대사는 “태국과 한국은 불교를 통해서 깊은 문화적 정신적 유대를 공유해 왔다. 양국 간의 전통은 두터운 우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됐다”며 “오늘 봉축점등식은 양국이 보유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지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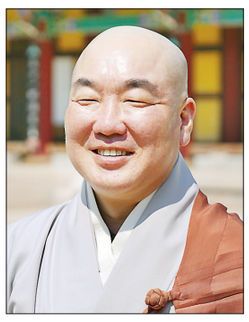
니시 칸트 싱 주한인도대사 대리는 “20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를 향한 평화와 깨달음, 자비를 가르친 불교의 빛이 솟아올랐다. 그 빛은 인도를 떠나서 이곳 한반도까지 전해졌다”면서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교류 사례 중 하나로 동국대는 그 유산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9명의 프랑스 유학생들이 동국대에서 수학했고 18개 프랑스 대학이 동국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베르트랑 자돗 주한프랑스부대사는 “앞으로 동국대와 프랑스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돈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점등 버튼을 누르며 캠퍼스에 1만4000 연등에 불을 밝혔다.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학생대표, 각 주한대사들은 불 밝힌 연등에 소원지를 달며 화합과 평화를 서원했다. 이어 점등 대표들은 연등을 들고 풍물패 이판사판의 사물 연주와 함께 팔정도 광장을 탑돌이 했다.

동국대 신임 이사에 우석 스님 선출

4월 28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의결
성비위 교수 2명 중징계 회부



동국대 신임 이사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4월 28일 제366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이사직을 사직한 덕문 스님의 후임 이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은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과 연규 스님(향일암 주지) 중 우석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1997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18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구례 사성암 주지, 화엄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화엄사 주지,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법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도 이뤄졌다. 새로 감사 임기를 시작한 재안 스님은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덕문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위원으로는 진화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덕문 스님의 사직과 도림 스님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개방이사추천위원에는 각각 성화 스님과 법성 스님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성추문으로 문제가 된 문화유산학과 A교수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한 △정관 변경 △정관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 △2025회계연도 각 급기관 결산 승인 △학과·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수증)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학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연등 1만4000개를 학내 전역에 걸었다. 점심공양 전에 이사진들이 소원등을 달아주셨는데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4월 29일은 건학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5주년이 되는 날로 건학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됐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를 재밌게” 동국대, 첫 불교동아리 박람회

16개 불교동아리 부스 홍보
단주 만들기, 목탁 체험 인기


박람회장을 찾은 스님과 인증샷을 찍는 학생들.

16개 동국대 불교동아리를 홍보하고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람회가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8일 팔정도 광장에서 첫 불교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팔정도 광장에는 1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스와 목탁 체험, 단주 만들기, 연등 만들기 등 프로그램 부스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목탁을 직접 쳐보며 울림, 내림 목탁 등을 스님의 지도 아래 배워갔다. 한 알 한 알 나무알을 꿰어 단주를 만들며 시험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사장 스님이 쏜다’ 부스에서는 2행시를 짓고 부처님께 합장 삼배를 올리면 커피가 제공됐다. 스님과 합장 인증 샷을 찍는 ‘스님을 찾아라’ 부스도 인기가 높았다.

1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들은 자체 제작한 키캡 굿즈와 스티커, 간식 등을 학우들에게 제공하며 동아리를 홍보했다.

학생들의 호응도 높았다. 임보민(경제학과 23학번) 학생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어제 잠을 잘 못 자고 생각이 혼란스러웠는데 단주를 만들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사라졌다”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홍보대사 ‘동감’으로 활동 중인 김민지(통계학과 24학번) 학생과 박현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5학번) 학생은 직접 연등행렬에 참여할 팔각등을 제작하며 봉축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민지 학생은 “직접 만든 연등으로 행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어제 소원등을 달았는데 가족과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학생은 “연등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은데 학교 곳곳에 걸린 연등들도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소원등을 조만간 걸 예정인데 학점이 잘 나왔으면 한다는 소원을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중국 4대 불교성지

지장도량(구화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관음도량(보타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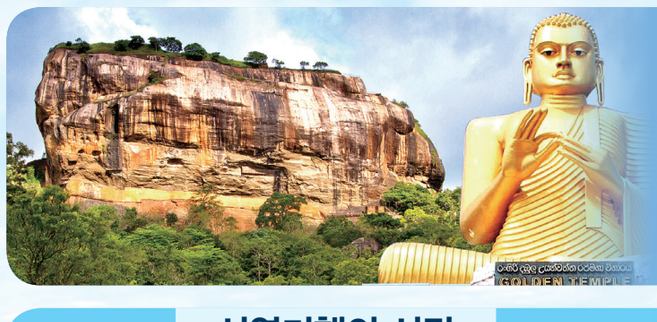


보현도량(아미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문수도량(오대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서역기행의 시작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법문사-맥적산석굴-수렴동마애불-란저우-돈황(명사산, 막고굴)-투루판(베제클리크 석굴, 고창고성)-우루무리(천산천지)-서안-인천
▶동참금 : 문의
★국내선 2회+고속열차 1회로 편안한 일정★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 / 11월 4일 / 11월 11일 / 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